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2년 5월 조사 -

2022년 6월 3일
주식회사데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장기 연휴의 인파 증가로 개인소비 관련이 회복

~ 중국 봉쇄 및 부품조달 곤란 등으로 『제조』의 생산·출하가 정체 ~

(조사대상 2만 5,141사, 유효회답 1만 1,605사, 회답율 46.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2년 5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1.2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해외정세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정지 등도 나타났으나 개인소비 관련이 회복이 계속되어 3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향후는 하방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으나 완만한 상향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연휴도 있어 『소매』 『서비스』 등 9개 업계가 개선된 한편 중국 봉쇄의 영향으로 자동차 공장의 감산(減産), 가동정지가 영향을 미친 『제조』는 악화되었다. 또한 엔저(円低) 및 원재료 가격의 급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단가 DI는 35개 업종, 판매단가 DI는 20개 업종에서 과거 최고로 나타났다.
-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토카이』가 악화되었다. 장기연휴로 주요 관광지의 인파가 증가하여 관련된 소매업 및 음식점 등에서 체감경기의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부품조달난은 『제조』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규모」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의 체감경기는 2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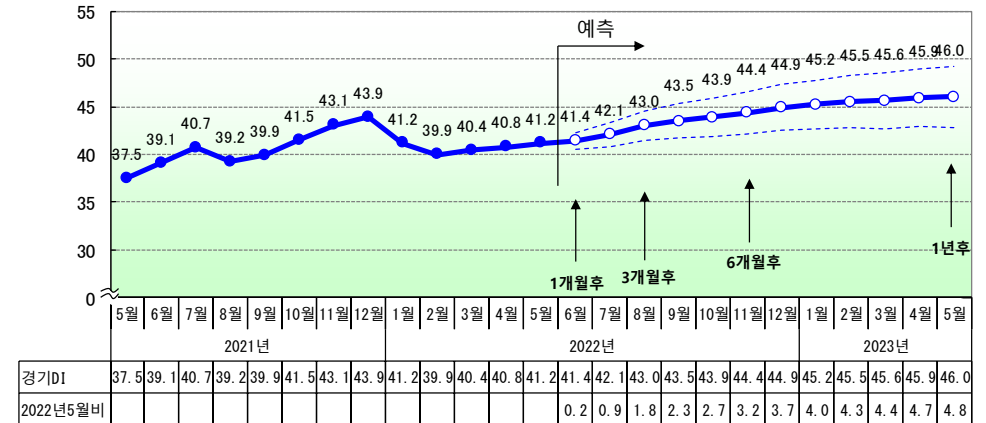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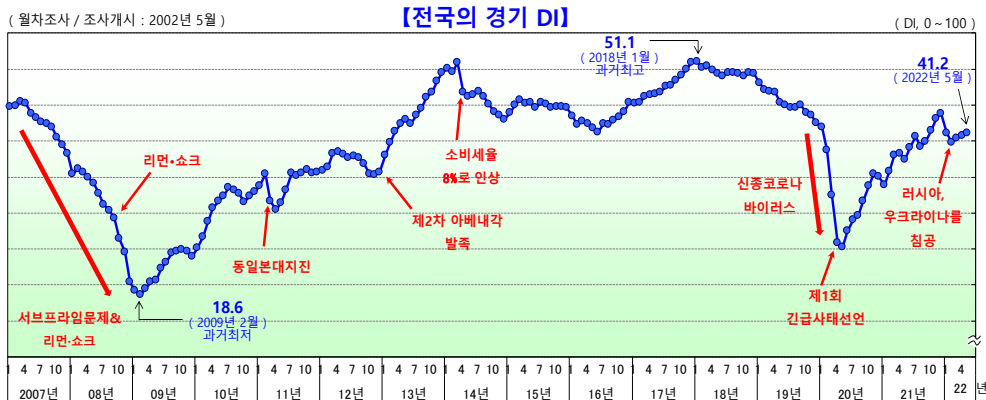
< 2022년 5월의 동향 : 회복 경향이 계속돼 >

2022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1.2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5월의 국내경기는 만연방지 등 증점조치의 해제 및 인파 증가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장기연휴의 이동도 많아 활황을 보였다」(소바·우동점) 등 내객수의 증가가 나타나는 등 어렵지만 여행업 및 여객운송 등을 포함하는 개인소비와 관련된 체감경기가 상승하였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등 엔저(円低) 및 원재료 가격에 의한 수입물가의 역사적인 상승, 중국에서의 봉쇄 및 부품조달 곤란, 반도체 부족 등으로 공장 가동이 정지되는 등 마이너스 요인에도 많이 직면하였다. 또한 사업단가 DI와 판매단가 DI는 과거최고를 갱신하여 거래가격 및 판매단가로의 전가가 일부에서 나타났다. 국내 경기는 해외정세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정지 등도 나타났으나 개인소비 관련이 회복이 계속되어 3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 향후의 전망 :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완만히 상향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의 행방 및 엔저(円低) 진행, 원유·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불투명한 외부환경 동향이 우려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수입 물가 상승은 기업의 수익력 및 가계의 실질구매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상황에 진정이 보이는 가운데 외출기회 증대에 따른 대면 서비스 수요의 확대 외에 인바운드 소비 수요도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 및 만회생산, 가격상승으로의 인식 변화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는 하방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으나 완만한 상향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